

# 장흥군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 '첫 발'

###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비 2억 확보 보훈처 490억원 규모 국비 사업 김성 군수 "장흥 최적의 입지조건"



예산안 협의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은 김성(왼쪽 두번째) 장흥군수가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흥군이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군은 최근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면서 호국원 유치에 정진호가 커졌다.

28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통과된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 전남호국원' 용역비가 포함되면서 장흥군이 전남호국원 유치전에서 타 지자체에 견줘 한 발 앞서게 됐다.

전남호국원은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490억원 규모의 전역 국비 사업이다.

전북 임실호국원이 오는 2024년 만장됨에 따라, 전남 지역에 새로운 국립묘지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특히 광주와 전남에 연고를 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접근성 확보 차원에서 전남호국원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장흥군은 전남호국원의 지역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를 방문

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 김성 장흥군수는 김승남 지역구 국회의원과 보조를 맞춰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용역비 반영을 성사시켰다.

장흥군은 내년에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호국원 유치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립호국원 유치를 확정 지은 강원

도의 추진상황을 벤치마킹해 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군은 광주-전남 모든 시군에서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며, "국립 전남호국원 유치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을 찾는 유동인구의 수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희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화순군 공무원이 편의시설 수의계약 특정 업체 권장 '물의를'

### 특허제품 생산 지역 업체 배제

화순군 재무과 계약 담당 공무원이 산림소득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수의계약 협의 과정에서 지역 우수업체를 배제하고 특정 업체를 권장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화순군과 농공단지업체 등에 따르면 군이 올해 사업비 5000만원을 세우 추진한 휴양림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수의계약 협의의 과정에서 계약 담당이 지역 업체가 문제라 있다며 해

당 부서 담당자에게 계약이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특허품을 생산하지 않는 다른 지역 특정 업체를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계약 담당이 특정 업체를 소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여기에 이 공무원은 앞서 또 다른 사업과 관련 화순농공단지 업체를 배제하고 1억여원의 계약을 특정 업체와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 농공단지업체 관계자는 "지역을

우선시해야 하는 공무원이 특허제품을 생산하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런 상태라면 누가 이 지역에서 지역을 위해 사업을 하겠느냐"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계약 담당은 "해당 부서 담당자가 설계도서도 없이 서류 한 장으로 문의하자 지역 업체는 과거에 사고가 있는 업체라 판단해 다른 업체를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식이섬유 풍부한 강진산 목이버섯 인기

### 설 앞두고 명절 선물 주문 줄이어

설을 앞두고 목이버섯 출하가 한창이다. 강진군 목이버섯은 부드럽고 쫄깃한 맛과 식감으로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다.

가정의학회지 목이버섯 관련 연구에 따르면 목이버섯은 혈액응고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혈소판 응집 및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하고 비타민 B, 베타카로틴, 칼슘,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성장기 아동, 골다공증 예방, 피부미용,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버섯 6종 선물세트.

강진에서 목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귀농인 박재일 대표는 370평 하우스에서 연간 12 t 이상 버섯을 생산한다. 타 지역 버섯재배 농업인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찾는 선진농업인이다.

박 대표는 "귀농한 후 재배기술에 대한 많은 시행착오, 계약업체와의 불신 등 우려곡절이 많아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택배비·포장재 지원사업, 시설확대 지원사업, 재배기술교육 등 군의 다양한 지원으로 빠른 기간에 안정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은 행정적 지원이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강진 친환경 목이버섯 주문 및 구입 문의는 강진 초록민음(<http://www.gangjin.center>) 소핑몰에서 가능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i@

# 담양 관방천 500억원 투입 명품 하천으로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선정

담양의 대표 관광자원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인근의 관방천이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한다.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공모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영산강 관방지구가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환경, 생태,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도를 도모하는 신개념 통합형 하천사업이다.

담양을 학동리(학동교)~삼다리(삼다교) 일원 4.7km 구간에 총 500억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방 독살기와 보

축, 생태공원, 친수공간, 야간테마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영산강 관방지구 통합하천사업이 완료되면 재해 예방,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연간 360만 명이 방문하는 전남권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과 연계해 관방지구가 명실상부 전남의 대표 명품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지 중 선정된 22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기본구상을 마련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나주시, 빈집 정비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원

### 현실 여건 맞춰 150만원서 상향

나주시가 내년부터 '빈집' 정비 보조금을 기존 150만원에서 철거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대폭 상향 지원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붕괴·화재·범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경관을 훼손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지만 기존 보조금 대비 자부담 비율이 높아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는데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도 포함된다.

보조금은 건축물 면적 대비(㎡당 35000원) 차등 지급하며 80㎡이상일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빈집 매매·임대 거래를 희망하는 소유자들의 절차를 거쳐 LX공사 빈집정보시스템(공가람)에 등록, 예비 귀농·귀촌인이 빈집을 매입해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농촌활력 빈집재생사업'을 추진해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고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마을협의회·사회단체 등이 5년 간 주택무상사용 승낙·관리 협약을 체결하면 개소당 리모델링 공사비를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 3억원을 편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빈집 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단 '크리스마스 숲스테이'에 참여한 어린이가 3D펜으로 만든 트리를 뽐내고 있다.

# 장성 편백숲 '크리스마스 숲스테이' 인기

### 100여명 참가 다양한 체험 즐겨

장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마련한 체류형 숲 체험 여행 콘텐츠 '크리스마스 숲스테이(stay)'가 참가자들의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지난 24-25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축령산 편백숲에서 머물며 장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 활동 모임체에서 준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예약을 통해 접수한 100여 명의 가족 참가자들이 많은 눈이 내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령산을 찾았다.

참가자들은 증강현실 숲 체험, 케이크 만들기, 3D펜 트리 만들기 등을 즐겼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특화산업 육성, 일

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지난 2019년 축령산을 활용한 '편백숲 어울림 치유여행 프로젝트'를 제안해 선정됐다.

국비 포함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군은 그간 청년과 주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했다. 관광 콘텐츠 확장 지원, 관광 아이템 발굴 등 주민조직체의 자립적 기반 마련에 집중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번 '크리스마스 숲스테이' 시범 운영을 통해 장성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역량과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명품 관광 콘텐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담양군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동절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담양군이 동절기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지원'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복지공동체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읍면 및 담양군에 13개 기동대, 189명이 활동하고 있다.

군은 ▲노후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 ▲겨울철 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 ▲전기·가스 등 화재 안전 점검과 위험요인 사전 제거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의료 주거비 등 노인 대상, 동절기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중점 발굴 대상으로 지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및 담양군청 희망복지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화순군, 산림분야 연이은 수상 나무심기 등 2개 부문 우수기관

화순군이 전남도 주관 '산림행정종합평가'와 '탄소중립 나무심기 평가'에서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산림행정종합평가는 매년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보전 ▲산림휴양 ▲공통지표 총 3개 분야, 18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군은 2022년 목재산업단지 조성(50억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10억원) 등 4개 사업, 68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나무심기 평가에서도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약 65만 본의 나무를 심고 민간단체·주민 주도의 생활 속 숲 조성을 활발하게 추진, 숲 속의 전남 만들기 등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장흥 우드랜드 문체부 '웰니스 관광지' 4회 연속 선정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4회 연속 선정됐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2017년 최초 지정 이후 4회 연속 선정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니스 관광지로 입지를 굳혔다.

우드랜드는 생태체험편선, 편백소금찜질방 등 주요 시설물과 산림치유 프로그램(숲 해설, 유아 숲, 마음 숲 프로그램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자연·숲치유 분야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 됐다.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관광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한국관광공사와 전라남

도의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장흥군은 연계 콘텐츠 개발, 팸투어 운영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최근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는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별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초화류, 관목류를 식재하여 LED 바, LED 네트 조명을 설치하였고, 향후 산책로 주요 동선에 고보조명, LED 업라이트 조명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장흥군은 야간 콘텐츠를 확충해 '어제인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의 명성을 되찾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흥=김용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kykim@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산책로.